

'10년 표류' 광주 시립수목원 내년 착공

토지 보상·문화재 발굴 마무리...내년 초 공사 양과동 일대 430억 들어 2022년 완공 예정

10년 동안 표류했던 광주시립수목원 건립 사업이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간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구 양과동 일대 사업 대상지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전체 사업 부지가운데 아직 매입하지 못한 7필지를 확보하려는 절이다.
광주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시립

수목원 사업 인정 고시를 근거로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171억원을 들여 135필지, 16만6000여㎡ 토지를 매입했다. 수목원은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 주변 국·공유지 24만1500여㎡, 사유지 5400여㎡ 등 24만6900여㎡에 조성된다. 국비

30억원, 시비 400억원 등 두 430억원을 들여 온실·전통정원 등 전시 시설,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 시설, 재배시설(묘포장), 관리시설(방문자센터), 도로·광장 등 기반시설을 갖춘다. 녹지, 남도 테마정원, 종다양성 연구원 등이 주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토지 보상,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지연돼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기간(5년)이 한 차례 만료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사업 규모를 4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산림청으로부터 다시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의 어려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며 "2022년까지는 시민 휴식 공간이자 생태 체험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목원은 식물종다양성 확보가 기본이다. 수목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등 공기 정화에서도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다음달 23일까지...계림2 등 정비사업 조합 7곳 대상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조합운영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다음달 23일까지 점검 대상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동구 계림2, 계림7 재개발, 서구 영주주공 재건축, 남구 월산1 재개발, 북구 누문, 풍향 재개발, 광산구 신가 재개발 구역 등 7곳이다.
1개 구역 당 최소 3일간 점검한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감정원, 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0여명을 투입해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용역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처리, 정비사업비 적정여부, 정보공개 적법성 여부 등이다.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에 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시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점검이 회계서류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변호사 등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받아 조합운영 실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 집단 민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회계사를 점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류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더 나아가 부담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동강대와 일자리창출 협약

광주시는 25일 동강대학교와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와 동강대는 지역에 맞는 일자리 모델 개발과 인공지능(AI) 산업 및 복지·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상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인공지능(AI) 산업 및 복지·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협력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산·학·연·관 구인처 발굴 및 정보제공 ▲지역산업 육성 프로그램 활용 인적자원개발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이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건설공사 신기술 심의 강화된다

차연수 도의원 조례안 통과
전남지역 건설공사에 적용할 건설 신기술에 대한 심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차연수(강진1·민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전남도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골자는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 신기술 활용 공사가 늘어나면서 건설공사에 반영할지 여부 등을 밀도있게 심의·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차 의원은 "지역별 신기술 활용도를 살

펴보면 서울·경기가 990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도 17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적용공사가 많다"고 말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자체 및 지자체가 납입자본금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 시행공사 가운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시설물 안전·공사시행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전남도가 발주한 30억원 이상 공사 중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사전 심사 등을 심의·검토하게 된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제 336회 제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다음달부터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내년 3월까지 323개 공공기관 대상...겨울철 미세먼지 대책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청,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공공부문 임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는 홀·짝수제가 적

용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한다.
다만,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공 2부제에서 제외된다.
또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

인 차량은 공공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광주시는 차량 2부제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단속시스템도 내년 5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진출입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강력한 단속도 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은

비산먼지가 40.3%로 가장 많고, 자동차 등 도로 이동오염원이 22.4% 순이다.
김종현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질 악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광주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매년 초 시행하는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범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및 6개 특별자치시·광역시·자치구, 교육청,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학 병원 등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 철회해야"

전남도의회, 조계종에 탄원서
전남도의회가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를 철회할 것을 조계종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5일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조계종 중앙종회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호남불교의 중심지인 천년고찰 백양사는 종교나 신앙이기 이전에 도민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자긍심 그 자체였다"며 총림 해제 결정 철회를 주문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백양사의 미비한 총림 지정 여건을 들어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백양사의 가치는 종교적 사찰에 그치지 않고 오랜 역사와 문화를 두루 지닌 지역의 상징과도 같다"며 의원들의 자필 서명 탄원서를 조계종에 보냈다.
도의회 김한중 부의장은 "총림이라는 자격은 백양사에 그 상징과도 같고 20여년이 넘는 오랜 기간 지역의 자부심이었다"며 "도민들의 탄원서가 잘 전해져 해제 결정이 철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dok2000@kwangju.co.kr

http://najuaesiang.sarangeuro.co.kr

신규 선착순 분양 중

광주전남혁신도시 B1 블럭 이노 시티 애시앙 (4-bay) 일반분양!

생활 혁신!

중앙호수공원, 나주호 관광단지 등 자연환경 탁월

교통 혁신!

호남고속도로, KTX송정역, 광주공항 등 광역교통망

교육 혁신!

한전공대(예정), 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 초·중·고 인접

미래 혁신!

16개 공공기관과 신학연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커뮤니티

84㎡A/B/C 총 1,478세대

모델하우스 061)337-4025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전세대 발코니 무료 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 거실, 각 방 총5대) 무상제공

중도금 무이자

광주전남혁신도시애시앙 B1블럭 A·B·C구분지: 전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번지 · 공공주택내역: 아파트 지하층, 지상 13~20층 237세대, 총 1,478세대 및 부대시설 · 분양관리: 시행사 자체관리 · 시공 및 시공: (주)부영주택

※ 본 광고에 실은 이미지는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으며, 분양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권합니다.